

## 굿네이버스USA 한 생명 살리기 고난주간 금식운동 캠페인 실시

코로나 19의 여파, 기아 인구 2억 7천 만명 달할 것  
동아프리카 지역, 1,300만명 하루 한끼도 먹지 못해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하루 한끼 이상 금식  
영양실조와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아동 후원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그 피해가 빈곤 국가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아프리카와 같이 기초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서는 마실 수 있는 물도 부족한 상황에 손을 씻는 예방법도 실시 하기 힘든 상황이다.

UN 산하 세계식량계획(WFP)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은 올해 최악의 식량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 했다. 당초 유엔 식량농업기구(FHO)는 1억3천만명이 만성 기근으로 내몰릴것으로 전망 했지만,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해 식량 생산과 공급이 줄면서 세계 기아 인구는 당초보다 2배 늘어난 2억7천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수정했다.

또한 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사망 메뚜기떼의 습격으로1,300만명이 하루 한끼도 먹지 못하는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 사망 메뚜기떼와 코로나 19와 같은 여러 위기의 영향이 취약 계층을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 USA(회장 이일하)는2021년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고난주간을 맞아 심각한 영양실조와 물 부족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기 위한 고난주간 금식운동 캠페인을 실시한다.

고난주간 금식운동은 교회 및 단체 가족단위의 참가자들이 고난주간동안 하루 한끼 이상을 금식하며



극심한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아동

예수님의 고난의 참된 뜻을 묵상하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후원금과 함께 심각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아동들에게 전하는 캠페인이다.

2010년부터 11년째 이어오는 캠페인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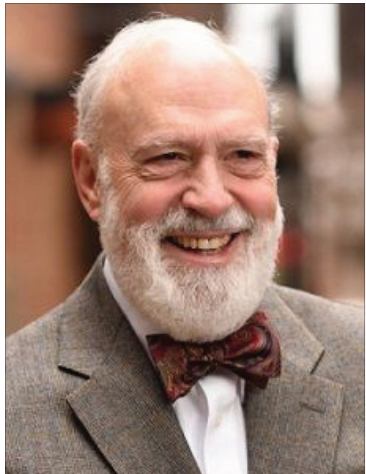
해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굿네이버스는 아프리카 최빈국 12개 국가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공부하며 성장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일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개발 사업 및 소득증대 사업 등을 통한 지역의 자립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후원금은 에티오피아, 케냐, 니제르, 차드와 같이 취약국의 아동들을 위한 급식 및 보건 위생, 식수 지원 사업 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참여 문의: 877-499-9898



F. 라가드 스미스 박사.

최근 F. 라가드 스미스(F. LaGuard Smith) 박사는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평등, 공평, 그리고 다가오는 박해'(Equality, equity, and the coming persecution)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다음은 그 주

### “미국 평등법 법제화... 양의 탈을 쓴 늑대”

요 내용.

당신은 평등을 믿는가? 우리는 이 진실들이 자명해지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다인가? 그렇다면 누가 현재 의회에서 추진 중인 평등법을 반대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마도, 절묘하게 들리는 법제화는 양의 탈을 쓴 늑대이다. 그것은 매우 정교하다. 그러나 3개의 관련된 어젠다가 추진되는 중이다. 이를 러시아 마트료시카 인형으로 생각해 보라. 작은 것이 큰 것 안에 담겨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가장 크고 매력적인 이것은 사회적 정의라는 인형이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석하며, 모든 백인들은 '최소한 의도적이지 않은 인

종주의자'라고 주장한다. 극단주의, 조작, 위선을 떠나 인종평등은 정당한 대의이다.

사회적 정의 인형은 그 다음으로 작은 젠더 인형을 가려 준다. 이는 정확하게 동일한 모양으로 똑똑하게 디자인되어 있다. 마치 젠더 이슈가 인종 이슈와 같이 합법적인 것처럼 말이다. 평등법 아래에서는 누구도 절대로 LGBTQ나 성전환자들을 차별해선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소녀로 정의하는 소년은, 소녀들로 구성된 스포츠 경기팀에서 제외되어선 안 된다. 스스로를 남자로 정의하는 여자는 양심에 종교적 거리낌을 지닌 교회로부터 고용을 거부당해선 안 된다(심지어 이것이 헌법적으로 명시된 종교의 자

유를 침해한다고 해도 말이다).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했다면, 깨어난 세계에는 '평등'이라는 새로운 대명사가 존재한다. 젠더 인형 안에 들어있는 평등 인형은 '평등'의 일관성 쌍둥이처럼 보인다. 그러나 속지 마라. 이 나라 건국의 바탕이 된 기회의 평등이 아닌 좌파의 '평등'의 목표는 경제적·사회적 결과의 평등이다. 결과의 평등을 도출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체계는 엘리트 기층자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이들의 수준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만약 그것이 그들이 지닌 권력의 지위나 교외에 위치한 값비싼 집과 멋진 SUV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오늘날 그들 누구도 진정한 결과의 평등을 원하지 않을 것

이다. 평등은 그들 문 앞에서 갑자기 멈춘다!

만약 당신이 진정한 평등을 추구한다면, 근원으로 가야 한다. 평등은 '창조된 평등'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는 교훈책에 기록된 것처럼 보장된 성과 기회의 평등에 관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이들이 초대 받았지만, 모든 이들이 영접하지는 않을 것이다.

신앙에 대한 불평등한 차별이 만연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문을 닫을 용기가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올 때 본문은 "오늘 당신이 섬길 자를 택하십시오"(수 24:15)가 될 것이다. 강해진 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rit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월~금: 8AM~6PM, 토 8AM~4PM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730-0112, (323)735-3180

**OC 부활절 연합 예배**

예수 부활하셨네!

- 일시 : 2021년 4월 4일(주일) 오전 5시 30분~7시
- 장소 : 은혜한인교회
- 주최 : OC기독교교회협의회
- 문의 : 박상목 목사 (회장:714-612-5958)  
추석근 목사 (총무:714-213-9627)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원 제한이 있사오니 교령이나 질병이 있으신 분은 참석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Orange County



# 급증하는 아시안 증오범죄, 트라우마 확산 예방과 치유 필요

## 제1회 한인정신건강 전미 컨퍼런스 개최

LA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캐서린 엄)가 오는 4월 17일 서부시간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제1회 한인정신건강 전미 컨퍼런스를 '트라우마와 힐링'을 주제로 연다. Zoom을 기반으로 한 화상 컨퍼런스로 미전역 한인들이 참석해 각자의 상처에 맞는 강의를 들으며 치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동안 급증한 아시안 증오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트라우마를 입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속한 집단 전체에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될 수 있어 피해의 확장성이 크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집단 트라우마 확산을 예방하고 치유하자는 취지다.

컨퍼런스는 주제 강의와 선택 강의 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주제 강의는 정신과 전문의로 40여

**제1회 한인 정신건강 컨퍼런스**  
**트라우마 그리고 힐링**  
 4/17(토) 서부 10AM-11:30AM(중부 12PM, 동부 1PM)

**주제강연 : 10 AM-10:20 AM (서부)**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정신과 전문의 수잔 정 박사

**SESSION I: 10:25-10:55AM(서부)**  
**선택강의 [상처 알기]**  
 1-5중 강의 하나 선택

**SESSION II: 11:00-11:30AM(서부)**  
**선택강의 [상처 치유하기]**  
 A-E 중 강의 하나 선택

년간 한인들의 정신건강을 책임져 온 수잔 정 박사가 맡았다. 정 박사는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주제로 누구나 크고 작은 트라우마를 품은 채 살아가는 많은 한인들을 위해 상처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변화하고 극복하기에 이르는

방법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할 예정이다.

선택강의는 세션 1의 '상처알기', 세션 2의 '상처치유하기'를 주제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세션 1 강의에서는 5가지 강의중 선택하여 들을 수 있으며 트라우마 주제별로

어린시절 겪은 트라우마와 자존감 ▶ 상실, 트라우마가 되는 과정 ▶ 트라우마 그리고 그 상처 101 ▶ 내 소중한 아이, 상처를 안아주는 법 ▶ 사랑과 전쟁 그리고 치유로 나뉜다. 세션 2강의 역시 5가지 강의중 선택하여 들을 수 있으며,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치유 방법별로 ▶ 경험을 통한 치유 ▶ 트라우마 극복을 돕는 우리 몸의 참여 ▶ 수용을 통한 치유 ▶ 내 소중한 아이, 상처를 안아주는 법(연습) ▶ 미술활동으로 만나보는 치유로 나뉜다.

주제 강연자인 수잔 정 정신과 박사는 "코로나 19는 우리사회에 큰 집단 상처를 남겼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상처를 극복하는데 도움 받으며 가족과 주위분들의 사랑을 통해 삶의 행복을 다시 누릴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인가정상담소 캐서린 엄 소장은 "토요일 내 자신을 위해 1시간 반만 투자하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치유하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주제강연자 수잔 정 박사의 저서 '나와 나의 가족이 경험한 ADHD'를 추천을 통해서 증정한다.  
문의: 213-235-4848

## 미주복음방송 이웃들과 8번째 음식 나누다

오는 27일(토) 오전 11시, 미주복음방송 본사



음식을 나눔을 준비하는 미주복음방송 봉사자들

미주복음방송(대표 이영선 목사)이 오는 27일(토)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미주 복음 방송 본사(2641 W La Palma Ave, Anaheim CA 92801)에서 오렌지카운티 푸드뱅크와 함께 8번째 음식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나누는 음식 양은 2만 파운드에 달하며 드라이브 스

루로 나누게 된다. 미주복음방송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달하고자 한다"며 "모든 음식물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봉사자들이 차에 실어드리며 비대면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는 GBC 미주복음방송은 방송 미디어를 통해 '지구촌의 한인 디아스포라 교포 사회와 열방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문의: 714-484-1190

## 민족학교, 시민권 및 영주권, 다카 신청 무료 서비스 지원

민족학교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의 이민법 개혁과 관련된 시민권 신청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무료로 시민권과 다카(DACA, 서류미비청년추방유예 프로그램) 신규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또 영주권 신청 및 가족초청 영주권 상담 등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민족학교 법률 서비스 신청은 사전 예약 후 민족학교 사무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민족학교는 "이민 관련 상담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며 "여러 문제로 시민권 신청을 미루고 있는 분들이 도움을 받게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시민권 및 관련 법률 서비스 문의는 LA 주민의 경우 민족학교 LA 크렌셔 사무실인 323-937-3718 또는 323-205-4187, 오펜

지카운티 주민은 풀러턴 사무실 714-869-7624로 연락하면 된다. 이메일 문의는 법률 서비스 코디네이터 데이비드 김(david@krcla.org)에게 하면 된다.

민족학교는 오는 3월 24일 오후 6시, 시민권 신청과 관련한 최신 정보를 안내하는 웨비나를 무료로 개최한다. 시민권 신청 웨비나에 참석하시려면 민족학교 홈페이지(krcla.org) 이벤트란에 접속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한편 민족학교는 이민항소위원회(BIA,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승인을 받은 비영리단체로 법적 대리인 자격을 갖춘 전문인 및 변호사가 수년간 시민권 신청과 영주권 신청, 서류미비청년추방유예프로그램(DACA),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 등 이민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특별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1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8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원적 수업도 지원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한미연합회 아시안 증오 범죄에 강경 대응 촉구

코로나19 발생 이후 미국서 3,795건 증오 사건 발생  
아시아인 커뮤니티 향한 인종 차별, 증오 범죄 급속도로 증가  
신고전화 211, 동시 통역이 가능 모든 정보 기밀 유지 돼

애틀랜타에서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이 총격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미국에서 아시아인을 겨냥한 증오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연합회(KAC)가 아시아인 아메리칸 커뮤니티에 대한 증오 범죄와 폭력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한미연합회는 또 커뮤니티 리더들과 선출된 공직자들이 반아시아인 폭력으로부터 커뮤니티를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Stop AAPI Hate 리포트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미국에서 무려 3,795건에 이르는 증오 사건이 보고됐다. 아시아인에게 침을 뱉고 기침을 하거나, 모욕, 위협, 폭행에 관한 보고는 지난 몇 달 동안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아시아인 커뮤니티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에는 LA 코리아타운에서 한국계 미국인 공군 베테랑이 인종차별적 욕설과 위협으로 무참히 공격당했으며, 91세 아시아인 노인은 대낮에 거리를 걷다가 땅바닥에 내

쳐지기도 했다. 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84세 아시아인 비차 라타나팍디씨가 아침 산책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해 사망하는 등 아시아인 커뮤니티를 향한 인종 차별과 증오 범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미연합회는 “이번 애틀랜타에서 일어난 끔찍한 총기 살인 사건으로 목숨을 잃고 다친 사람들, 상처입은 커뮤니티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며 “공직자들과 연대해 아시아인 증오 범죄에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



한미연합회 유니스 송(Eunice H. Song, Esq.) 대표

매체들은 코로나19를 지칭할 때, 인종차별적이고 분열을 조장하는 언행으로 아시아인들에 대한 반감에 불을 붙였고, 펜데믹이 가져온 고통에 아시아인들이 타켓이 됐다”며 “모든 소외된 커뮤니티를 향한 인종차별과 폭력에 맞서 연대하고 증오사건과 범죄에 적극 대응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연합회는 혐오적 발언, 괴롭힘, 욕설, 위협, 폭력, 증오 사건 및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전화 211은 동시 통역이 가능하며 모든 정보는 기밀로 유지된다. 온라인 신고는 Stop AAPI Hate 또는 아시아인 정의진흥회(AAIA)에서 한국어, 중국어, 타갈로그 등 다중 언어로 신고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 연합감리교회 한교총, 중남부지역 한파 피해 구호헌금 1만 달러 지원



한파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중남부 한인 교회 ©한교총

지난 2월 미국을 강타한 혹독한 겨울 한파에 중남부 지역 한인교회들이 피해 복구작업과 함께 심각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남부 지역 한인교회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더불어 교회 건물 천장 붕괴 및 침수 피해와 함께 수도세와 전기료 폭탄을 맞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입었던 교회에 다시 한파 피해까지 더해진 교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총회(이하 한교총) 회장 이철구 목사(남부

플로리다KUMC)는 “코로나 팬데믹의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 중남부 지역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한파에 폭설까지 내려 여러 한인교회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교회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제 5차(형제자매 교회돕기) 모금 운동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교총은 한파로 피해를 입은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의 상황을 파악

하고 1차 지원헌금으로 다섯 교회에 구호헌금 1만 달러를 지원했다. 한교총은 교회돕기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의 도움을 계획이다.  
한교총 총무 김일영 목사(체리힐제일교회)는 “10년 전 뉴저지에서 겨울 폭풍 ‘샌디’로 인해 2주 동안 전기 없이 지내며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시간을 보냈던 경험이 있다”면서 “어려운 시기에 함께 울고 기도하며,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누기 원한다”고 전했다.  
한교총 서기 배연택 목사(찰스톤 한인연합감리교회)는 “기록적인 한파로 피해를 입은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며 “이번 피해가 중남부 지역 교우들과 목사님들에게 큰 좌절이 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고 어려운 교회들을 위한 헌금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교총이 중남부 지역 한인 교회들을 돕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2021년 형제자매 교회돕기 캠페인

은 현재까지 남부플로리다KUMC(이철구 목사) 1만 달러 LA드림교회(정영희 목사) 3천 달러, LA 한인연합감리교회(이창민 목사) 5천 달러, 뉴멕시코교회(김종일 목사) 1천 달러, 뉴저지연합교회(고한승 목사) 5천 달러, 뉴욕만백성교회(이종범 목사) 1천320달러, 체리힐제일교회(김일영 목사) 7천250달러, 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 협의회(최장학 박사) 1천 달러 등 총 3만3천570달러의 헌금이 모아졌다.  
지난해 한교총은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을 위해 8월부터 11월까지 캠페인을 진행해 미국 내 46개 한인교회,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연합감리교회를 위해 선교헌금 15만8천 달러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교총 형제자매 교회돕기 캠페인에 대한 문의는 김일영 목사(전화: 856-424-9686, 이메일: ikim89@hotmail.com)에게 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로  
희망한다

Righteous  
Cultaw

굶주림  
보다 더 큰  
목마름

책의 추천자들:  
오대현목사(예수전도단), 주선애교수(성신대 영예교수)  
이영희교수(예스대대표), 송정영목사(복음선교회)  
김종민목사(주빌리교회), 신정민목사(복음선교회)  
유관희목사(영광교회), 김인식목사(KCC공공대표)  
\* 영의 책은 아예 번역제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20/권 + \$5 우송료

박상원 목사  
책의 판권자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수련 ‘빛은 그로 희망한다’는 북한 건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순교종언으로 지역에서 찬곡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겐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책크라우드: GBM 모든 기부금은 세무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독교출판사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달려보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한미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 고난주간 특별 새벽부흥회

예수의 나를 위하여...

그가 짊어지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5)

**PASSION WEEK**

**OC 교회연합 부활절 새벽예배**  
시간: 4/4(주일) 5:30am  
장소: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본당

**www.gracemi.com**  
2021. 3. 29(일)~4.2(금) 새벽 5:30, 4.3(토) 새벽 6:00  
강사: 한기홍 담임목사 | 장소: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본당

<b>한기홍</b> 담임목사 은혜의 말씀 방송 시간	우리방송 AM 1230 JSTV 미국지역 CH 668(Dishnet) TBO Play CH 25 CHTV크리스천헤럴드 CTS TV 미국 CH 2092(Directv) San Diego Radio Korea TBO Play CH 25 CHTV크리스천헤럴드 CTS TV 미국 CH 2092(Directv) KCBS Chicago AM 1590 JSTV 미국지역 CH 668	오전 08:30(주일) 오전 08:00(주일) 오후 12:00, 9:00(주일) 오후 04:00(월요일) 오후 04:30(화요일) 오후 08:00(화요일) 오전 10:20(수요일) 오전 06:00(목요일)	CTS TV 미국 CH 2092(Directv) Radio Seoul AM 1650 미주복음방송 AM 1190 CTS TV 한국(금) Radio Seoul AM 1650 JSTV 미국지역 CH 668 <b>그외 인터넷 방송</b> KCMUSA.org(재미한인기독교선교재단) · GKCTV SBN(Smart Broad Casting Network), KCBN (미주기독교방송국) SON Ministry(GMAN Radio)	오전 09:00(금요일) 오전 05:30(금요일) 오전 11:30(금요일) 오전 05:00(한국시간) 오전 06:30(토요일) 오전 04:00(토요일)
------------------------------------	--	---	---	---

**주일예배 안내**  
1부7:30am | 2부9:20am | 3부11:30am | 4부2:00pm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GRACE KOREAN CHURCH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446-6200, Fax:714-446-6207  
www.gracemi.com 은혜기도원: Tel: 951-277-1188  
11985 Indian Truck Trail, Corona, CA 92883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99

“영원한 선교 동역자  
고 장경일목사를 회상하며...”

필자가 장 목사를 처음 만난 때는 사우스베이 지역에서 있었던 선교 세미나에서였다. 환철한 키에 기타를 치며 찬양을 인도하던 모습이 매우 진지하고 은혜로웠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몇 번 개인적인 교제를 가졌다. 영어를 잘 하여 2세인이었는데 청소년기에 미국에 온 1.5세라 하였다. 한인 1세대들을 대상으로 교회 개척을 하였다 했다. 필자와는 연령의 차이가 나는 편이었지만 그분의 대화의 정중한 자세는 외향으로 풍겨지는 청년이 아니고 같은 또래의 친구 같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

세계선교 이야기를 주로 했다. 자신이 경험했던 아프리카 선교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의 섭리를 많이 나누었다. 필자는 오래도록 지속했던 터키 및 이슬람 선교사역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공감을 서로가 얻기도 했다. 2006년경 필자가 창립 초기 때부터 이사로 섬겼던 실크 웨이브 선교회(김진영 선교사)를 소개하여 함께 이사로 섬기며 터키 등을 같이 가기도 하였다. 장 목사는 성품이 온화하고, 참 순수하였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여 선교회의 교회 연합안에서도 Think Tank 역할을 하였다. 모든 이사들에게도 늘 칭송 받으며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여 주는 동역자였다.

특히 필자와의 개인적 관계는 사우스베이 목사회 연합회에서 필자가 먼저 회장 사역을 맡았을 때 부회장으로 협력했고 그다음 회장 사역을 맡아 2년째 감당하기도 했다. 교회 협의회에서도 늘 모임 때마다 예배 찬양인도를 도맡아 참 많은 은혜를 끼쳤던 분이였다. 그분의 귀한 사역 덕분에 사우스 베이 교회연합은 “연합찬양제”를 갖기도 했다. 한 번은 멕시코 선교사들을 초대하여 사우스베이와 선교사들 간의 영적 결연을 갖는데 촉매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다.

그분이 개척하여 목회하였던 원패밀리교회는 젊은 층의 성도들이 많고 게다가 2세 EM 청년층이 굳건한 교회였다. 필자의 자녀들도 그 교회의 청년 예배에 참석하여 은혜를 나누기도 했다. 장 목사의 목회관은 선교 우선 정책과 교육 사역 특별히 장애우 돌봄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사역에 남다른 관심과 열심을 내기도 하였다.

이따금 전화를 해서 “목사님! 좋은 식당 발견했는데 같이 점심 어떠세요?” 하며 사적인 식사 자리를 갖기도 했다. 그도, 필자도 서로가 칭찬할 때 서로가 한 번도 거절했던 기억이 없다. 만나면 좋았던, 편하고 다정했던 벗과 같았던 분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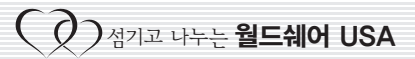
필자가 멕시코 신학교로 부름 받아 선교사 파송을 받고 떠날 때도- 그때가 팬데믹이었기에- 조만간 꼭 선교지를 방문하겠노라고 인사를 나누고 필자는 멕시코로 들어왔다. 그것이 그분과의 마지막 만남이요 대화가 되었다.

참 많이 서운하고, 아프고, 보고프다. 사모님과 같이 할 때에 느꼈던 두 분의 참 다정한 모습이 눈에 선하다. 두 분은 여느 부부보다도 더 애뜻하고 다정했다. 그런 사모님의 아픔과 자녀들의 슬픔이 헤아려진다. 그러나 임종전 고인이 모두에게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 임성이니 슬퍼할라 했다던 당부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참 신실했던 훌륭했던 목회자를 먼저 떠나보낸 원패밀리교회 성도들의 깊은 슬픔도 느껴진다. 필자가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따뜻하게 맞아 주었던 교우들의 선한 모습들이 목사님의 모습과 어우러져 교차적으로 떠오른다.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목사님이 남긴 세계선교의 비전과 교회 연합의 꿈을 계속해서 이어가자는 원패밀리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아울러서 장 목사의 남은 유가족,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덧입혀지기를 기도한다. 천국 가서 다시 만날 천국 재회의 소망을 품고 그분이 가려했던 선교부흥의 길을 걸겠노라 다시 다짐해 본다.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인문학으로 읽은 바울의 생애 ⑩ “버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은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선교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선교팀은 바보(Paphos)에서 배를 타고 밤발리아에 있는 버가(Perga)로 갑니다. 그들은 제1차 전도여행 때 왕복 2회에 걸쳐 버가를 통과하였습니다(행 13:13,14:24~25). 갈 때에는 버가에서 선교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고, 돌아오는 길에 버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행14:25).

버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 있는 도시입니다. 먼저 선교팀의 리더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이전까지는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할 때 바나바부터 언급합니다. 그러다가 버가를 향할 때부터 선교팀을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사용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마가의 이탈입니다. 마가는 일행이 버가에 도착할 때 선교팀을 이탈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일은 2차 선교여행을 출발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헤어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행 13:13~14, 15:36~41). 선교여행에 동행하던 마가가 선교팀을 이탈한 이유를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약신학자들이 마가가 선교팀을 이탈한 이유들을 찾았습니다. 혹자는 마가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산길이 너무 험해서 떠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버가 북쪽에 있는 높은 고산 지대가 마가가 선교여행을 포기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그만큼 버가의 북쪽은 높은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혹자는 마가는 바보(Paphos)섬에서 바울이 체찍에 맞는 고난과 고통을 목격하고 두려워 떠났다고 합니다. 선교현장의 고난을 두려워 마가가 돌아갔다고 합니다. 또 높은 산을 넘어 전도여행을 해야 하는 일정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아갔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혹자는 선교팀 내부 리더십의 변화가 마가가 선교팀 이탈의 이유라고 주장합니다. 바울이 엘루마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서기오 총독을 변화 시켰습니다. 아울러 바보 주민들도 다수 회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팀 리더가 되자 삼촌 바나바를 따라 나섰던 마가는 돌아갔다고 주장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마가가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으로 고생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구약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에 실망한 마가는 바울의 선교팀을 떠났다고 주장합니다. 여하간 버가는 선교팀의 변화가 이뤄진 곳입니다.

버가는 바울이 방문했던 소아시아의 첫 도시입니다. 버가의 역사는 알려진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고대 해안도시 버가는 밤발리아 지방의 중심도시로 B.C. 13세기 경 건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리디아왕국에 이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알렉산더대왕이후 더욱 번성합니다. 버가의 최고 번성기는 로마 시대였다고 합니다.

버가의 성벽은 BC 3세기경 건축된 것으로 견고해서 외침을 잘 견디었습니다. 이런 견고한 성을 힘입어 버가는 밤발리아의 주요 토착 성읍으로 자리 잡습니다. 버가는 헬라와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헬레니즘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버가에는 그리스 로마 스타일의 원형 극장이 있는데 1,400명의 관중석이 있는 대형 극장입니다.

버가의 종교 문화는 그리스와

유사합니다. 버가는 에베소와 함께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던 아시아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버가 시가지 외각 언덕에서 있는 화려한 아데미 신전은 버가가 자랑하는 문화재였습니다. 그들의 종교 문화와 제의는 고대 그리스와 에베소 그것과 유사했습니다. 아데미 여신의 성격은 에베소와 비슷하고 때로는 고대 그리스에서처럼 수렵의 여신으로서 숭배되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그리스, 로마,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아라비아 지역에서도 숭배했던 여신입니다.

아데미 여신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올림포스 12신중의 하나입니다. 제우스의 딸이자 아폴로의 쌍둥이 여동생입니다. 티탄족 여신 레토는 사촌인 제우스와 사랑을 해서 아데미와 아폴론을 임신합니다. 하지만 질투심이 불탄 헤라의 방해로 온갖 고초를 당하다가 제우스의 부탁을 받은 포세이돈의 도움으로 델로스 섬에서 아데미와 아폴로를 출산합니다. 아데미는 평생 남자들을 멀리하고 숲에서 사냥을 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버가에는 또 아고라가 유명했습니다. 아고라는 아테네에서 유명했고, 에베소에서도 유적이 있습니다. 버가의 아고라 규모는 에베소에 버금가는 규모였습니다. 아시아의 아테네로 인정받았던 에베소와 아고라 규모가 같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버가 시민들의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버가를 출발한 선교팀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합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험하기로 유명한 타우루스(Taurus) 산맥을 넘어야 했습니다. 약 100마일의 산길도 어려웠지만 여정에 도사리고 있는 큰 어려움이 있었었습니다. 먼저, 계곡물의 범람이었었습니다. 갑작스런 폭우로 불어난 계곡물이 범람하여 큰 사고가 빈번 했습니다. 더욱 어려운 것은 험난한 산길에 갑자기 나타나는 강도떼(Bandits)로 악명 높았습니다. 선교팀은 험산준령을 넘어 새로운 선교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LA 노숙자지원,  
아이티 쓰레기마을 아동지원,  
수리남 참전용사 자녀돕기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 인생의 전부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작은 나눔  
(30불, 50불)으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사랑과 섬김!  
행복의 비밀입니다!

World share USA가 LA에서  
특별한 사랑과 섬김을 시작합니다.  
월드쉐어는 국제 주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는 NPO와 함께합니다.  
월드쉐어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장애, 빈곤,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 교회 부흥의 사례들(1)

## 교회의 부흥, 교회성장론과 목회성공에의 재인식(5)



Pentecost mosaic Image by Holger Schué ©Pixabay

###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필자와 직접 교제를 나눈 다음 몇 분들의 교회를 소개하면서 목회적 부흥의 참된 교훈을 나누고자 한다. 미국에서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성경적 교회부흥의 본질을 재발견하기를 소망한다. 필자는 이분들의 교회에서 예배와 사역에 참여했고, 그 목회현장이 풍성함을 체험하면서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았다. 수적으로 대형교회를 이룩한 분들이요, 현대 교회사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기념비적인 이정표를 세웠다고 말할 수 있다. 이분들은 하나님을 성경에 입각해서 소개하고 있기에, 교회가 성령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느꼈다. 필자의 안목에서 무엇이 참고할만한 가치인가를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필자가 소개하는 이들 목회자들은 변질된 교회 성장론과는 전혀 다른 토대 위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했고, 아름다운 사역의 결과들로 감동을 주고 있는 분들이다. 소위 미

국 복음주의자들은 건전한 동기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세속적인 방법론들을 수용했다. 물질적이며 세속적인 목회성공에 몰입하는 실수를 많이 남겼다. 로버트 솔러의 수정교회(크리스탈 처치)처럼, 외적인 규모와 사업적인 프로그램으로 채색된 목회 성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졌다. 적어도 필자가 소개하려는 교회 성장의 요소들과 성공한 목회는 다음과 같은 신앙 요소들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첫째, 참된 부흥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광대하심, 임재하심, 인격적인 성품들을 (사랑과 진노, 언약을 맺으심, 인격적 관계) 강조하는 메시지가 중심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대화를 나눌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바 말씀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필자가 소개하는 목회자들은 무슨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능력의 소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 하시는 사역을 가감 없이 소개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분들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견고한 기초가 분명하며, 올바른 나팔을 불어서 깨우치고 있다. 온전한 복음 이해, 즉 똑바로 정립된 정통신학이 없는 균형 잡힌 목회가 불가능하다. 물론,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본질을 완전히 꿰뚫어서 알 수 없다(롬 1:18-23). 하나님께서 친히 낮춰주셔서 우리들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것만을 오직 알 수 있을 뿐이다.

필자가 존경하는 이들 목회자들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능력이 탁월하였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요 17:3).

둘째, 세상에서 쓰는 일상적인 용어보다는 성경의 언어를 중요하게 선포한다.

말을 잘하는 설교자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를 계속 듣게 되면 감성적이 되거나 지식의 만족으로만 그치게 된다. 필자가 소개하는 목회자들은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의 본문을 온전히 풀어주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필자가 존경하는 이들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과 선포를 확실하게 들려준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구원을 확실히 알게 해 준다. 현대신학자들의 잡다한 신학 이론들을 잘 안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유럽교회가 보여주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추앙을 받았던 칼 바르트의 신학으로 성공한 목회자를 보았는가? 필자가 소개하려는 분들은 소위 최고의 신학자들이 내놓았다는 현대신학에는 전혀 관심도 없다.

셋째, 세상에서의 개인적 성공보다는 성도들의 통합체로서 교회의 승리를 꿈꾼다.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하였고, 반대로 어째서 일부는 실패하였는가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요셉과 다윗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사람이었는데, 그 후손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시는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의 성공을 자랑하려는 집착이나 욕심을 성취하려 한 자들은 망하고 말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하고, 그 나라의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롬 14:17). 복음의 동기부여로 가정과 사회와 직장에서 보람있게 살려는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서 여러 가지 사

역들을 펼치고 있다.

넷째, 이런 목회자가 섬기는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싶다는 “신뢰감”을 준다. 외식과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역시 교회마저도 옥석을 가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은혜 때문에, 이단들과 거짓 목회자들이 잠시 동안 큰 소리를 발하고 성공한 듯 보인다. 그러나 예외없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들은 무너지고 만다. 인간의 생각들은 대단한 통찰력을 주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번쩍일 뿐이다.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일 뿐이다. 참된 진리는 깊은 고뇌와 은혜를 통해서 잘 단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었다.

필자가 존경하는 목회자들은 대부분 평생을 통해서 인격과 삶으로 열매를 보여준 분들이다. 40년 이상을 사역한 분들인데도, 놀랍게도 전혀 “스캔들”이 없는 분들이다.

다섯째, 오늘 현재의 교회의 모습이나 현상 유지에 결코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제자훈련을 강화하고, 교회의 모든 요소들이 혁신과 갱신을 추구하고 있다. 세상의 변화 속도는 너무나 빨라서, 순식간에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교회도 역시 성도들의 성장과 제자훈련을 강도 높게 끌어올려서, 결코 무더진 채로 뒤처지지 않도록 신앙 강화에 매진해 나가고 있다.

교회 공동체는 놀라운 변화의 연속이요, 하나님의 기적이 지속되는 현장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사역의 열매들이 쌓여가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을 만큼 공동체들이 성장하였다.(계속)



김재성 박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

# 2021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선교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재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종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호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dmissions@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 미 흑인 교계 지도자들 “바이든 평등법 우려” 성명 발표

미국 전역의 50명 이상의 흑인 기독교 지도자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평등법을 규탄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했다고 18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최근 뉴욕 브루클린의 대형 교회를 이끄는 A.R 버나드 목사, 전 NFL 스타인 벤자민 왓슨을 비롯한 52명의 교계 인사들은 바이든 평등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앤드 캠페인(AND Campaign)’ 공개 서한에 서명한 뒤, 상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했다.

서한은 AND 캠페인에 대해 “더 나은 대표성, 보다 공정하고 자비로운 정책, 건강한 정치 문화를 가져오는 시민 문화적 참여를 위해 기독교인을 교육하고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독교 연합을 표방한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평등법에 대해 미국의 “무너진 체제(broken system)”를 반영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성명은 “바이든 행정부의 평등법은 건전한 다원주의 사회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종교 단체가 그들의 신앙 교리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본권을 상당 부분 없앴”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지도자들은 평등법이 LGBT 공동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권리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해”가 아닌 “신앙 기관에 대한 갈”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경고했다.

전 전미여자농구협회(WNBA) 선수인 찬텔 앤더슨(Chantelle Anderson)은 서한에서 바이든 평등법이 향후 연방 보안과 재난구조,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Instagram

교 학교, 신앙기반 지역 봉사 프로그램에 대해 연방 지원금을 차단할 것이라는 기독교 지도자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서한은 또 새로운 법안이 학비 보조금 프로그램인 ‘펠 그랜트(Pell Grant)’와 종교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연방 대출 자격을 취소하

고, 예배당을 공공 편의시설로 급격히 변화시킬 것을 우려했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망가진 체제를 반영한 바이든 평등법을 대신하여 성, 성적 지향,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와 종교 활동의 자유 보호”를 골자로 한 “모든 것을 위한 공정법(Fairness for All Act)”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 법안은 유타 주의 크리스 스튜어트(Chris Stewart) 공화당 하원 의원이 116차 의회에서 처음 선보였으며, 바이든 평등법이 통과된 지 이틀 만에 하원에 재도입됐다.

공정법은 바이든 평등법과는 달리, 종교적 보호를 함께 보장한다는 점에서 전국복음주의협의회(NAC)와 기독교 대학 및 대학교 협의회(CCCU)로부터 지를 받고 있다.

김유진 기자

## 미 개신교 목회자 4명 중 3명 “생물학적 성 전환은 반윤리적”

미국에서 생물학적 성별을 부정하는 개인을 위한 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미국 개신교 목회자 대다수는 ‘성 유동성(gender fluidity)’이 윤리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내슈빌에 본부를 둔 라이프웨이 리서치에 따르면, 개신교 목회자 4명 중 3명(72%)이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별로 인식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답했으며, 특히 62%는 이에 강력히 동의했다.

반면 목회자 7명 중 1명(14%)은 동의하지 않았으며, 도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0%였다.

또한 복음주의 목회자(84%)들은 타 주류 개신교 목회자(32%)들보다 생물학적 성을 부정하는 것에 반대할 가능성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교단별로는 오순절 교회(90%), 침례교(89%), 복고주의운동(69%), 루터교(60%), 개척/장로교(45%), 감리교(43%)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뉴욕 등 북동부(Northeast)가 17%로 다른 성별 인식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답할 가능성이 가장 낮았다.

이어 목회자 4명 중 3명 이상(77%)은 수술이나 호르몬 요법을 통해 자신이 타고난 성별을 바꾸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답했으며, 71%는 강력한 동의를 나타냈다.

반면, 목회자 8명 중 1명은 동의하지 않으며, 7%만이 성전환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여기서도 복음주의 목회자들은 주류 개신교 목회자들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응답을 보였다. 복음주의 목회자 10명 중 9명(90%)은 육체적으로 성별을 전환하려는 시도가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답한 반면 주류 개신교 목회자는 37%에 그쳤다.

교단별로는 앞의 질문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성전환 시도를 부도덕하게 보는 경향은 오순절 교

회(96%)와 침례교 목회자(94%)가 가장 높았고, 복고주의운동(75%), 루터교(69%), 개척/장로교(49%), 감리교(48%)순이었다.

2020년에 라이프웨이가 실시한 ‘신학 연구’ 조사에서 개신교 미국인의 44%와 전체 미국 성인의 35%는 태어난 성별과 다른 성별로 동일시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또한 미국 성인의 79%는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창조했다는 것에 동의했다.

이번 조사에서 목회자의 절반 가까이(48%)가 트랜스젠더인 사람을 알고 있으며, 41%는 모른다고 답했다. 이는 2015년 목회자들이 ‘트랜스젠더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27%)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주류 개신교 목회자(63%)가 트랜스젠더 개인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으며, 감리교(63%), 성경복귀운동(47%), 루터교(47%), 오순절 교파(40%), 침례교(39%) 순으로 나타났다.

인종별로는 아시아계, 라틴 등 타인종의 목회자(57%)들이 트랜스젠더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고 답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고, 백인 목회자는 48%, 흑인 목회자는 36%로 나타났다.

라이프웨이 리서치 스코트 맥코넬(Scott McConnell) 이사는 “미국 문화는 점점 더 도덕성을 역사적 기독교와는 다르게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맥코넬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남성과 여성을 디자인한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이야기를 받아들이지만, 목회자들은 이 디자인(생물학적 성)을 바꾸는 것을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대다수 목회자들은 육체적 성전환이든, 대중적 신분 증명이든, 한 사람의 생물학적 성을 인간이 바꾸면 안 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여론 조사는 미국 개신교 목회자 1007명을 대상으로 2020년 9월2일부터 10월1일까지 전화와 온라인 설문을 병행하여 실시했다.

김유진 기자

## 남침례교 윤리종교자유위 “평등법은 근본 자유 침해”

미국 남침례교 산하 단체인 윤리 및종교자유위원회(ERLC)가 바이든 평등법이 승인될 경우, 권리 장전에 보장된 근본적 자유와 배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티스트 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ERLC는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가 주최한 ‘성적 지향성과 성 정체성을 추가 평등법(H.R.5)’ 청문회에 서면 증언을 제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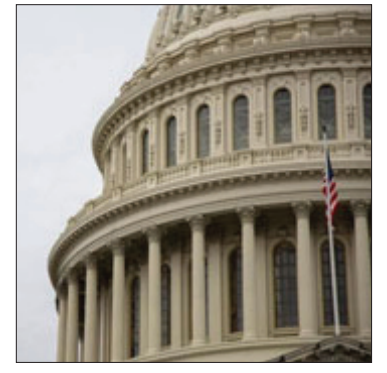
ERLC는 서면에서 이 법안이 “(동성애자 및 트랜스젠더에)아무런 반감도 없는 수백만 미국인을 불필요하게 처벌하고 차별할 것”이라며 “종교적 자유에 전면적이고 역사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근본적 자유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회가 통과한 낙태 찬성 법안 중 가장 강력한 법안”이라며 “여성과 소녀들을 위해 수십 년 간 치열하게 싸워온 시민권 보호를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ERLC에 따르면, 이 법안은 ‘성’을 ‘임신, 출산 또는 관련 질병’으로 재구성하여 낙태 시술에 참여를 원하지 않는 의료 종사자의 양심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등법은 “신앙 기반 아동 복지 단체(결혼 및 가족과 같은 문제에 대한) 깊은 종교적 신념을 포기하거나 폐쇄하도록 강요할 것”이라며, 만일 의료계 종사자가 성전환 시술 수행을 거부할 경우 “그들의 직업을 잃게 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ERLC는 평등법이 종교자유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을 “명시적으로 축소시킬



미국 국회의사당 ©Unsplash/Joshua Sukoff

것”이라 예상했다.

1993년 미국 의회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이 법은, 정부가 개인의 종교 활동을 제한해야 경우에는 가능한 최소한의 수단만을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러셀 무어(Russel Moore) ERLC위원장은 60명 이상의 친생명(Pro-Life)단체 지도자들과 함께 별도의 서한을 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서한은 평등법이 1973년 미국 전역에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에 “친생명운동에 가장 큰 차질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평등법은 지난 2월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투표에서 찬성 224 반대 206으로 통과됐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를 승인한 상태다.

다만 상원에서 법안을 ‘필리버스터(filibuster,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없이 투표하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하지만 양당 의석수(50대 50)에 의해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유진 기자



### 마동환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Attorneys**  
**David Marh**  
**Simon Langer**  
**Frederick Alschuler**  
**Gordon Turner**  
**Nicholas Valmes**  
**Walter Roberts**  
**Douglas Villinger**

**이민법**

낮선 땅에서 안정된 신분과 안정된 삶의 정착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심분 새겨서 가족의 일과 같이 모든 신분변경 및 이민케이스를 꼼꼼함과, 정성과, 넓은 시야를 갖고 대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뢰인들께 만족한 결과를 드린 것이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기쁨이요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와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 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 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 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은 꼭 변호사와 하십시오!**  
**모든 상담은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무료상담 / 이메일 예약 환영**

www.marhlaw.com

tel. 213. 487.9190 fax. 213.487.9484 email. marhlaw@yahoo.com 3325 Wilshire Blvd., Suite 1350, Los Angeles, CA 90010



# “교회가 로버트 롱 같은 사람 만든 것을 회개하자”



최병호 목사 ©기독교일보 DB

## NCKPC 아시안 혐오범죄 긴급성명서 발표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NCK-PC)가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 18일 총회장 긴급성명서를 발표하고 아시안들을 향한 혐오범죄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성명은 사건의 용의자인 로버트 롱(21)이 침례교 목회자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그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전하면서 교회들도 함께 반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최병호 총회장은 성명에서 “지난 1년간 미국에서 3천292건의 아시안계 혐오사건이 접수됐다”면서 “하루 평균 11건의 아시안계 혐오사건이 일어났다. 욕설과 언어허풍, 침을 뱉는 행위, 폭행,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미국 내 아시안 혐오사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최 총회장은 이에 “인종차별과 아시안계 혐오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사순절에 회원교회는 함께 기도해달라”면서 5가지 기도제목을 제시했다.

특히 첫번째 기도제목과 관련해서는 “놀라운 사실은 범죄자 로버트 롱은 침례교 목사의 아들”이라면서 “교회가 로버트 롱과 같은 사람을 만든 것을 회개하자”고 교회들의 회개를 가장 먼저 촉구했다.

이와 함께 △마음속의 미움과 증오심이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치유되도록 △미국의 가정, 교회, 사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미국과 온 세상에 분열, 인종차별, 폭력, 살인이 사라지도록 △애틀랜타를 비롯한 전국의 혐오범죄 피해자들과 차별당하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돕도록 등을 함께 기도할 주제로 제시했다.

최 총회장은 현재 애틀랜타 베다니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김대원 기자

## 美 진보 인사들도

### “평등법, 종교 기관에 대한 칼로 사용될 것”



미국 대형교회 목회자와 전 프로미식축구 선수 등을 포함한 저명한 흑인 기독교 인사들이 평등법(Equality Act)을 반대하는 서한에 서명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지난 17일 보도했다.

평등법은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에 근거해 고용 등에 있어 차별을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달 25일 찬성 224명, 반대 206명으로 하원을 통과했다.

미 상원 사법위원회가 평등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 전 날, 도시 지역 크리스천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온 진보적 시민 참여단체인 AND 캠페인은 사법위원회에 보내는 항의 서한 발송을 주도했다.

서한은 “기독교 기관뿐만 아니라 유대인, 시크교, 불교, 무슬림 이웃에 속한 기관에게도 (이 법안은) 위험하다”라며 “종교 공동체를 위협하지 않은 동시에 성소수자 공동체의 권리를 방어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전 국제종교자유대사를 역임한 수산 존슨-쿡, 브루클린 기독교 문화센터 버나드 목사, 노스캐롤라이나 파크 교회 클라우드 알렉산더 감독, 메릴랜드 글레나든 제일침례교회 존 젠킨스 목사, 공공 정책 전략가 바바라 윌리엄스-스키너 등 57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프로미식축구 선수였던 벤자민 왓슨, 여자 프로농구 선수 산텔 앤더슨 등도 서명했다.

서명자들은 “(평등법은) 고용, 주거 등에서 성소수자들을 위한 연방 정부 보호

지원을 언급하면서 시작했다. 그러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제안된 평등법이 건전한 다원주의 사회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기준에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서명자들은 깨어진 시스템의 반영으로서 평등법을 언급하면서 “(평등법은) 특히 종교 단체가 신앙의 신조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많은 기본권을 제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평등법은 성소수자 권리라는 미명 하에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패가 아닌 종교 기관에 대한 칼로 사용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은 “평등법으로 인해 종교적인 학교 수천개에 지원되던 연방 보안, 재난 구호, 학교 급식비 지원이 철회되고,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천 개의 종교 기관 프로그램과 연방 정부 협약이 종료되며, 종교적인 대학을 다니는 학생 수천 수만명은 연방 정부로부터 받는 무상 장학금과 대출 자격 등이 취소될 것이다. 예배당과 기타 종교 시설을 공공시설로 전환할 것이며 이로 인해 소송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명자들은 “평등법은 불필요하게 다양한 지역 사회의 우려를 서로 대립시킨다”라며 “모든 법에 대한 공정성(Fairness for All Act)은 성소수자 이웃을 보호하는 훨씬 더 사려 깊고 정당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침례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7: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토요일예배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대에 오인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3부예배(저세대에) 오전 11:30 (토)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7:30)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2인2세를 책임지며, 아민가정을 지어, 선교영광을 증언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son 교차)  
T. (213) 386-2233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7:30)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St.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 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와 이웃과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눔과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 북쪽방향 우회)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O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12:30  
찬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차성구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 금) 오전 5:30  
리셋에델민예배(소배방)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30(화-금)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 신, 초 정신의 흠뻑, 바른교회관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신도모이기 만민부 지역 유망한 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E/M(대, 청) 오후 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월, 화) 오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6:30(월, 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으로 세움 받아 함께 달리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cs.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저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영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성경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6:30(토) 오전 6:00

**안 한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7:30(금)  
종교개혁기념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ia@hnsia.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O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이고 내 길에 빛이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종교동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찬양찬양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 F. (818)882-9777 www.churchmann.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종교동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밤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예배 오후 7:30 한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MP리제물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교육부 후원예배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예배 오후 8:00(금)  
새벽기도회 오전 5:30(토) 오전 6:00(토)  
1954 Rhoad St., Northridge, CA 91325 EM: 오후 1:30  
T. (818)935-5887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 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종교동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유종동부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종교동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 장로교회**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쁘고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종교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 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토)

**이동진 담임목사**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믿어라, 함께 걷는 믿음-사랑-성령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경대림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17910 Prair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25-4020 / T.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m.com

주일 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교황청 “가톨릭 교회, 동성 결합 축복할 수 없어”



프란치스코 교황. ©인스타그램

교황청이 15일 가톨릭교회는 동성 결합을 축복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황청 신앙감시기구인 신앙교리성(CDF)은 가톨릭 교회가 동성 결합을 축복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공식적인 답변을 밝혔다.

CDF는 “교회는 동성 결합을 축복할 권능이 없다”면서 “그들의 결합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종교적 인정을 요구하는 동성애 커플을 성직자가 축복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했다.

CDF는 “결혼 이외의 성관계를 포함하는 관계나 파트너십은 비록 안정적이라 할지라도 축복을 주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며 “하나님은 죄악을 축복하지도 축복할 수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성명서에서 바티칸은 “동성 결합 축복은 가톨릭 교리와 불합치한다”라고 밝히면서 “이는 부당한 차별의 형태가 아니라 교회가 이해하는 대로 전례 의식의 진실과 성례전의 본질을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최대 가톨릭 시민단체로 알려진 가톨릭 연맹 빌 도나휴(Bill Donohue) 회장은 CP와의 인터뷰에서 “동성결합에 대한 바티칸의 입장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성명을 매우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논의 할 것이 남아 있지 않다. 타협 할 수 없다”며 “교회는 동성애자를 개인으로서 축복할 수 있지만 결코 동성 결

합을 축복하지 않을 것이며 동성 결혼은 신경 쓰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라고 했다.

스페인 예수회 루이스 라다리아 추기경은 성명을 통해 “동성 결혼이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유사하다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합법적이라고 간주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10월 공개된 한 다큐멘터리에서 “동성애자들도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권리가 있다. 누구도 이 때문에 배척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민결합법을 통해 그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특히 지난 2003년 교황청이 “교회의 존중과 평등이라는 원칙은 동성애 행위를 인정하거나, 동성애자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끌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어 파장이 컸다.

그러나 교황의 비서실에 해당하는 교황청 국무원은 곧바로 세계 각국에 주재하는 교황청 대사에 공문을 보내 “교황의 동성애자를 위한 시민결합법(Civil union law) 제정 발언은 과거의 인터뷰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벌어진 것”이라며 “동성 간 결혼에 대해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한 부분이 삭제됐다”고 해명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나는 늘 가톨릭 교리를 지켜왔다”며 “동성 간의 결혼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 교리에서 ‘부적절’하다”고 말했으나 다큐멘터리에서는 삭제됐다고도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WEA의 신앙고백, 설립 초기부터 성경에 기초”

한국장로교신학회가 20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WEA(세계복음주의연맹)’라는 주제로 제36회 온라인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복음주의 신학 · 신앙운동의 중심에 WEA

박 교수는 “예수님의 지상사역 이후의 교회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로 볼 수 있다. 교회를 향한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일(Magnalia Dei)은 크게 세 가지 변곡점을 형성했다”며 “첫째, 교부들은 초대교회 이단들로부터 정통신앙을 수호했고, 예큐메니칼 공의회를 통해 진리를 확충했다. 둘째, 종교개혁자들은 중세로 마교회의 타락과 부패로부터 성경적 가르침을 기초한 종교개혁을 실천했다. 마지막으로 복음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인간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로 이끈 자유주의에 저항하며, 복음주의 신학·신앙운동을 전개했다”고 했다.

이어 “19세기 신앙 좌표를 잃은 교회를 바로 인도하고자 했던 복음주의 신학·신앙운동의 중심에는 WEA가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WEA는 1846년 런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We are One Body in Christ, Unum Corpus Sumus in Christo)라는 주제로 모인 약 800~1000명의 복음주의자들로 결성된 복음주의연맹(Evangelical Alliance, EA)의 역사성을 계승한다”고 했다.

그는 “WEA 설립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은 19세기 중엽의 산업혁명, 이에 따른 도시빈민층 발생, 노동력 착취, 도덕성 상실 등 많은 사회 문제들과 사회적 불의들의 증가와 이에 대응한 사회적 신앙운동이 그 역사적 배경이 됐다”며 “또한 찰스 다윈의 진화론과 마르크스주의를 통한 유럽 내의 급격한 사회변화와 세계관 변화

에 대한 신앙적 대응의 성격도 지녔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박 교수는 “복음주의연맹은 첫 런던대회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국제대회를 개최하여 복음주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그 정체성에 따른 사회적 참여 운동과 교회의 일치운동을 전개해 나갔다”며 “각 대회는 복음에 입각한 교회의 일치와 사역에 있어서 연합을 강조했으며,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자행되고 있었던 로마 가톨릭의 정치적 억압과 독재에 맞서 신앙의 자유를 천명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활동을 고찰해 보면, 복음주의연맹은 당시 형식화된 국교회와 자유주의적인 신학이 지배적인 영국의 영적 상황과 제국주의에 따른 식민지배의 확장, 공산주의의 등장 등 당시 유럽의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서 결성되어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복음주의연맹은 무엇보다도 복음에 기초한 바른 신앙을 확립하려 했다”(김요섭,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의 역사와 활동’ 87)”고 했다.

박 교수는 “복음주의연맹은 성경이 신적인 계시로서 그 권위와 총족성을 강조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이 교회의 정체성과 일치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임을 최우선적으로 선언했다”며 “또한 모든 개인 성도들이 성경을 해석할 의무와 권리를 강조함으로써 형식화된 국교회나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난 자유주의 신학과 구별하여 바른 권위와 교회체제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했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박응규 교수 @박응규 교수 제공



# 분당우리교회, 분립할 29개 교구 교역자 및 지역 발표

## 당초 30개였지만 외부서 청빙한 1명 사의



이찬수 분당우리교회 담임 목사 ©기독일보

분당우리교회(담임 이찬수 목사)가 '일만성도 파송운동'에 따라 분립할 29개 교구의 교역자와 지역을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원래는 교회 내·외부 목회자들을 세워 30개로 분립할 계획이었지만, 외부 1명이 최근 개인 사정에 따라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다.

교회 측에 따르면 교구 분할 원칙은 3가지로, ①분당우리교회의 단순분립을 지양하기 위해 인원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지 않고, 분립되는 교회가 지역성을 갖도록 분할한다 ②분립을 위한 교구는 분당우리교회 성도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분할한다 ③각 교회 설립 세부장소는 그 지역의 미자립교회들과 동반 성장할 계획을 세워 추후 함께 발표한다는 것이다.

교회는 "일만성도 파송운동 분립개척 준비는 4월 1일부터 최종 29개 교구로 시작된다"고 했다.

한편, 분당우리교회의 '일만성도 파송운동'은 지난 2012년 7월 1일 이찬수 담임목사가 주일예배 설교를 통해 공식화했다. 분당우리교회 전 성도의 최소 절반인 1만 명에서 최대 4분의 3인 1만5천명까지를 파송하고, 분당우리교회 드림센터 앞으로 10년 간 사용한 뒤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것이었다.

김진영 기자

이찬수 목사는 지난해 2월 23일 주일설교에서 '일만성도 파송운동'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했다. 2021년 분당우리교회를 30개의 교구로 편성하고, 1년간 준비한 후 2022년 30개 교회로 분립·개척한다는 것이었다. 30개 교회 중 15곳의 담임은 교회 내부 교역자로, 나머지 15곳은 외부에서 청빙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후 분당우리교회는 4월 경부터 공식적으로 '타인 추천제'를 통해 외부 15인의 담임목사 청빙을 시작했다. 이에 따른 청빙 서류 접수 결과 총 339명이 추천됐다. 이들에 대한 서류 심사와 '목회자 세미나' 등을 거쳐 최종 15명을 결정했다. 내부 15명은 이 교회 부교역자들이 총 5번의 청빙 투표를 통해 선발했다.

교회는 "30개 교회 예비 담임목사 지역선정은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 공정하게 절차를 따라 선정 하였다"며 "4월 1일을 기준으로 30개 교구(실제 29개)로 나눠진다. 주일학교와 대학청년부도 일만성도 파송운동에 동참하며, 성도들의 분립 동참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리대로 참여한다. 교회적 분립 동참 참여 결정은 연말까지 할 수 있다"고 했다.

# “인권 앞세운 文 정부가 오히려 북한 인권 외면”

## VOA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공동제안국 불참에 비난 쏟아져”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미국 워싱턴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5일 보도했다. VOA는 “인권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북한의 인권 탄압을 외면하고 국제 공조 체제까지 약화시킨다는 지적인데, 동맹국 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가 예사롭지 않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부소장은 VOA에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번번이 동참하지 않은 데 대해 '역사의 심판'을 거론했다.

특히 미국을 포함해 일본·호주·영국 등 43개국이 이름을 올린 (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에 한국이 올해도 이름을 올리진 않은 데 대해선 실망과 우려를 넘어 분노에 가까운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에반스 리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

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솔직히 실망스럽고, 부끄럽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고.

또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유엔은 북한 인권과 관련해 소집된 가장 중요한 국제적 포럼”이라며 “한국이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지는 것은 결의안의 영향과 북한의 인권 관행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연합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행정부가 취하는 조치의 수혜자는 북한이고, 인권 위반에 책임을 물리려는 움직임을 방해하는 북한의 노력 역시 그런 조치의 수혜자”라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한편,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이후 지난해까지 18년 연속 채택됐다. 한국은 2009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다 2019년부터는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진 않고 합의 채택에 동참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레스 조은교회**  
주남일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정예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한글,영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기초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봉주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음 선포로 활명을 살려 생애공평케 하니 그로 인하여 모든 영혼이 복음케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cf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포를 받아 활개 달라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성령회 오후 8:00 종교개혁 기념 예배, 대학청년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종교개혁)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목요일예배: 오후 7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화-금)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설모임: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714) 525-0191 / www.ebso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성회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토)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아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몰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오전 11:00  
English Ministry 오전 11:30 Hispanic Service 오전 9: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

15151 Cordova Rd, La Mirada, CA 90638  
T. (714)749-7770 www.saemmoor.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종교개혁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용 담임목사**

**엘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아)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영아) 청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에배 오전 11:30(청년 영아)

**이서담 담임목사**

**엘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영아)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 (714)646-9259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1학년도 봄학기

##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2021년 3월 22일개강

###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 2021 봄학기 강의시간표

Day	Time	Class	Professor
Mon	7:30 PM - 9:30 PM	초대교회사	Daniel Min
Tue	7:30 PM - 9:30 PM	데살로니가후서,고린도전서	James Lee
Wed	8:30 PM - 10:30 PM	영성 신학	Elijah Kim
Thu	7:30 PM - 9:30 PM	선교신학2	David Lee
Fri	8:30 PM - 10:30 PM	기독교상담학	Jong Y Kim
Sat	7:30 PM - 9:30 PM	시편	Timothy Song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교육학박사,신학박사,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 코로나를 통해 배우는 교훈 4-고난의 유익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사서 한 기간이었습니다. 두 주가 지나 새까맣게 타서 귀가한 아들의 첫마디는 “Our problems are too luxurious! 우리의 문제는 너무 사치합니다.”였습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은 선교 현장에서 겪는 주민들의 문제에 비하면, 고민거리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고난의 유익은 역시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먼저 배웁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체득하게 되는 기간입니다. 그때, 고난은 우리를 보석으로 다듬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입성하는 거룩한 성을 보석으로 묘사한 계시록 21장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고난에 내동댕이쳐진 돌이 폭풍에 깨지고, 비바람에 다듬어지면서 보석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코비드 19 팬데믹이라는 고난 역시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쓰신 도구였습니다. 얼마 전, 지인이 보내준 기도문은 그 유익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막말을 했으면 주둥이를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디를 가나 손을 씻고 소독하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듯이,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사 28:16) 바로 우리를 위해 한결 같이 고난받은 돌이 되어 오늘도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의 손길로 만지고, 보석으로 다듬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71) 고백합니다. 표면적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 이 무슨 궤변인가 싶기도 하고, 혹은 고난을 미화하여 어려운 상황을 에두르려는 시도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숙한 성도님들은 이말씀에 100% 경험적 동의를 할 것입니다.

저의 큰아들이 철모르던 고등학생 시절, 선교 현장을 두 주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가서 선교를 했다가보다는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십여 명이 같이 숙박을 하면서, 현장에서 막노동에, 현지인들을 찾아다니며 ‘전도’ 보다는 그들의 도움이 되도록 물을 길어주고, 발일을 거두고, 저녁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훈련이었는데, 샤워도 제대로 못 하고, 화장실 사용도 불편했던 기간이었습니다.

두 주간 선교 현장에 머무는 비용과 교통비까지 자비로 다녀온, 말 그대로 고생을

### 하늘의 중심에 전달되는 우리의 기도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언젠가 그곳에 참여할 것이라 생각하면 너무도 감사할 뿐입니다.

낙원 끝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가는 곳 그리고 이미 많은 성도들이 먼저 가신 곳에는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24장로가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24장로가 또한 향이 가득한 대접을 가지는데, 이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낙원에 이르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그곳에 먼저 올라갑니다. 성도의 기도와 찬송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 천사들이 가진 금대접에 모여 저장된다고 계시록 5장 8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그날 하나님께 올라간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 순간 하늘의 천사들의 대접에 향으로 쌓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는 그 즉시 하나님의 왕궁에 전달됩니다.

특히 고통 가운데서 외치는 핍박받는 성도의 부르짖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존전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금제단 앞에서 순교자들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 피 흘린 의인들, 복음 증거로 핍박을 받아 죽게 된 사람들의 간구 ‘이 억울함을 언제 풀어 주시겠습니까’ 외치는 그 기도는 꼭 응답된다고 계시록은 약속합니다. 순교자의 숫자가 모두 차면 땅을 심판하기 시작하신다 계시록은 말합니다(계 6: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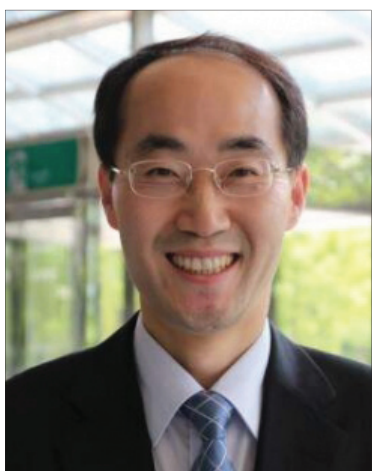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쌓이고 올라갑니다. 계시록 8장은 충분한 양의 향이 금대접에 모여들 때, 그것은 금 향로에 부어지고 하늘 성전의 금제단에 드리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존전에 남김없이 올라가면, 천사는 향로에 제단의 불을 담아 땅에 쏟는데, 그것에서 우레, 음성, 번개와 지진이 나며 악한 세상을 심판하는 재난으로 변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천국으로, 그 기도는 하나님의 우주본부에 전달되며, 하나님은 기도의 결과로 대적을 심판합니다. 영광스럽게도 성도의 기도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우주의 중심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주의 중심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는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하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유는 이땅에서 삶의 의미를 얻고, 이땅을 떠난 후 행복한 분향의 삶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을 직접 가서 보신 분은 많지 않으나, 성도들은 놀랍게도 그곳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성경의 저자들과 특별히 요한 사도의 기록을 읽으면서 묵상하실 수 있습니다.

계시록 4-5장과 다니엘서 7장은 우주의 중심, 곧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는 곳을 우리에게 묘사합니다. 네 명의 신비로운 천사들이 있고, 구약의 24반차 제사장이 있었던 것처럼 24명의 장로가 함께 있는 그곳, 천천 만만의 천사들이 둘러서 아름다운 찬송을 하고, 온 세상의 만물들도 찬송으로 응답하는 곳, 그 신비로운 광경이 계시록에는 비교적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직접 보면 너무 좋겠

### 정성욱 교수의 조직신학 에세이

## 인간본성의 전적 타락 (The Total Depravity of Human Nature)



덴버신학대학원 정성욱 교수

우리는 계속해서 조직신학 분야의 인간론을 탐구하고 있다. 기독교 인간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주제는 인간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 (imago Dei)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진리이다. 이 진리는 인간의 본질적인 존엄 (human dignity), 생명의 신성함 (sanctity of human life), 인간의 영광스러운 지위 (glorious status of human beings)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진리와 함께 같은 무게로 강조되어야 할 진리는 아담과 하와와 범죄와 타락 이후 인간이 처하게 된 비참한 상태에 대한 진리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고전적인 신학에서는 “인간 본성의 전적 타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여기서 “타락”이란 “부패”를 의미한다. 따라서 영어로는 타락과 부패를 뜻하는 “depravity”와 “corruption” 그리고 오염을 뜻하는 “contamination”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해 왔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일반적인 생식방법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의 본성은 전적으

로 타락된 상태 또는 부패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모든 자연인은 모태에서 잉태될 때부터 죄 가운데 잉태되며, 영적으로 죽은 상태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인간의 영혼과 육체 등을 포함하는 본성 전체가 죄로 물들게 되었고, 오염되게 되었고, 죄의 저주에 처하게 되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함으로써 모든 인간의 영혼이 죽은 채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인간의 본성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말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 보고자 한다. 중요한 것은 모든 자연인의 영혼은 죽어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인간의 몸, 육신도 죄의 저주와 오염으로 인해 죄의 노예가 되어 죄의 병기로 사용된다. 또한 생물학적인 생명도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육신은 연약하고, 병들고, 늙어지고, 끝내 죽을 수 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영혼과 몸이 결합할 때 생기는 인간의 마음도 부패하게 되었다.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마는” (렘 17:9)이라고 선포했다. 인간의 마음이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는 선언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인간의 속 즉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고 설교하셨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 15:18-20).

인간 마음의 부패는 인간의 양심의 부패와 연결된다. 양심은 하나님이 인간 마음에 심어 놓으신 도덕적 감각과 의식과 판단의 기능을 담당한다. 양심이 죄로 인하여 부패하게 됨으로 인간은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삶, 즉 가치가 역전된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그 결과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다. 로마서 1장 32절은 이런 상태의 인간에 대하여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고 고발하고 있다.

죄는 인간의 지성에도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것을 영어로는 “noetic effect of sin” 이라고 표현한다. 죄로 인하여 인간의 지성은 어두워졌고, 구부러졌고, 왜곡되었다. 타락 전 아담의 지성은 밝고, 빛났고, 포괄적이고, 정밀하고, 예리했지만, 죄는 인간의 지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영적인 무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참과 진리는 거부한 채, 거짓을 추구하고, 거짓을 믿고, 거짓을 따라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

죄는 인간의 감성에도 엄청난 해악을 끼쳤다. 인간의 감성은 균형각을 잃었고, 방향을 상실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 조절에 실패하게 되었고, 사랑해야 할 것을 미워하고, 미워해야 할 것을 사랑하는 감정적 도착증에 빠지게 되었다.

또한 아름다운 것을 추하다고 하고, 추한 것을 아름답다고 하는 감정적 가치전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감사와 기쁨 보다는 원망, 짜증, 불평이 인간의 감정적 기본 자세가 되었다. 심한 경우 도박과 포르노와 마약 같은 것들에 대하여 극단적인 중독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죄는 인간의 의지에도 심각한 재난을 가져왔다. 인간의 의지는 역방향으로 질주한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선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상실하게 되었다. 의지는 죄에 속박되어, 죄에 사로잡힌 욕망을 따라 악을 선택하고 행하는 죄의 노예가 되었다. 그 결과 타락인이 계획하고, 결심하고,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것으로 정죄 받게 되었다.

죄는 인간의 관계성에도 막대한 해악을 끼쳤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야 할 인간이 서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다. 서로를 높이며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서로를 짓밟으며, 서로를 이기적으로 악용하고 착취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인간관계는 적자생존의 원리에 기초한 극도의 경쟁관계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관계로 타락하게 되었다.

요컨대 하나님을 대항하여 반역하고 범죄한 인간은 전적인 타락의 상태에서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오해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것은 인간 본성의 전적타락이라는 진리가 인간은 통째로 악의 덩어리라는 것을 뜻하는가라는 문제와 연결된다. 다

시 말하면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말인가? 교회 역사 동안 일부 신학자들은 인간에게 선한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이 전적으로 타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된 채로 잔존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필자는 이 견해가 성경이 가르치는 바라고 믿는다.

인간 본성의 모든 부분은 죄로 인하여 심각하게 훼손되고 오염되었기에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어낼 수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훼손되고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 그러하기에 수직적인 또는 영적인 의미가 아닌 수평적인 차원에서 인간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 물론 이 “선한 일”조차도 영적으로 볼 때에는 “더러운 옷” (사 64:6)과 같은 것임은 분명하다.

인간 본성의 모든 부분은 죄로 오염되고 훼손되어 있다. 그의 영혼은 죽어 있으며, 하나님의 원수로서 그는 날마다 악하고 거짓된 것을 의욕하고, 선택하고, 행한다. 인간이 생물학적인 죽음을 경험하는 날 그는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 비참과 저주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장사된 지 사흘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개인적인 주님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모든 자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영타슈  
 주일제전  
 2592기  
 공미라고  
 마그네틱8원봉투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40년만 시공하면 원가보다 저렴합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통증탈출 양자칩**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C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Z-UP전동거꾸리 LOLC Inc.**  
 For the Spirit & Body

**양자 깔창**  
**양자파동 에너지 쿠션 죽초액 발매트**

-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할,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여들게 한다.
-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1) 죽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2) 은 : 항균, 향취 효과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 영구적으로 나옵니다.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 구원의 보장

신명기 11:1-12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하시고 세우심을 받은 모세가 애굽에서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이적기사를 나타내 보이셔서 모든 해방의 역사가 가능케 하셨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일과 사막에서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이적기사로 하나님이 구원시킬 자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을 더욱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멸망을 고집하고 자칭하는 사람들에게는 광야에 다 얽여져 멸망하도록 역사 하셨습니다.

본문은 남아있는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목자의 심정에서 호소하고 권면한 내용입니다. 애굽을 떠나면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오늘날 교회생활과 같다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의 신앙에 바른 중생과 성장, 결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본문 1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전제조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구원의 보장과 기대가 확실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목적일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이 허물어지고 개통되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필요성을 내가 절감하는 만큼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갖가지 구원을 위한 은혜체험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의식하게 되면 서부터 우리는 철부지 신앙의 자리에서 철든 의리와 인격과 예절을 목적으로 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철부지 신앙에 머물러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만 걸고 하나님이 기대하시지 못하도록 하는 입장은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마저도 무산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가지라고 주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63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더 나은 결실과 소망을 위하여 주시는 복된 말씀으로 듣는 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인생은 다 멸망하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기대와 의지를 가지고 복종하며 순종한 사람들은 영생을 보장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시면서 애굽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들, 그리고 홍

해를 갈라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신 후 뒤따르던 모든 애굽인들을 그 물로 덮어 멸하신 일은 구원의 대상과 멸망의 대상에게 배부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엄격하신 위력을 언제든지 잊지 않는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쉬지 않습니다. 이 징계라는 말은 교육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5이하-6에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했지만 징계를 통하여 영원히 멸망시키는 대상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훈의 성과, 회복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여러차례 징계를 하셨으나 끝내 그 징계의 목적이 하나님 기대에 어긋났다고 생각이 드실 때 마지막 징계는 유기하십시오 나 타났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모든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은 우리 신앙의 소망적인 발전을 위한 교훈의 목적으로 엮여져 가는 일들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광야에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교회 가운데서 따로 패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이백오십 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 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적 위치를 질투하고 시기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3-14에 "내가 우리를 짓고 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 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중략)...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한다고 불평스런 이유를 대며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애굽 땅을 짓고 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음에도 가나안 땅을 소망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대열에 끼여 행보는 같이 하고 있었지만 애굽에서의 삶을 추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며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했고 하나님은 온 이스

라엘 회중으로 하여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주변에서 떠나라 하셨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중략)...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했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밭의 땅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켰고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선 동원 250명도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 소멸하셨습니다.

한 울타리 안에 거하지만 영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세워 앞장세우신 모세와는 상관없이 지난 날 애굽에서의 생활과 그곳으로 돌아가려는 꿈으로만 가득 차 있었기에 가나안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다가 갈수록 그들의 불만은 커져갔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며 고집한 결과뿐이었던 것입니다.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들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묵도" 하게 하신 이유는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내세의 신령한 소망을 목적으로 신실된 믿음으로 살기를 기대하시어 다른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형벌을 내려 백성들 중에서 제거하십시오 경고하시는 교훈의 본을 세우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다 지키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시라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짓고 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21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하신 땅은 그동안 살아왔던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기름진 땅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곳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조건으로 보면 애굽은 참으로 살기 좋은 조건이고 가나안은 메마르고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가나안의 조건을 짓고 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언제나 이른 비(9~10월에 내리는 비)와 늦은 비(3~4월에 내리는 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에타게 믿고 기도하며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기 위해 언덕과 골짜기만 있는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망의 온전한 결실을 위하여 육신의 생계조건을 가지고 조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조건을 좇아 살아가지 말고 항상 지켜 살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러 하나님이 챙겨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깨닫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 성인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금요일 오후 2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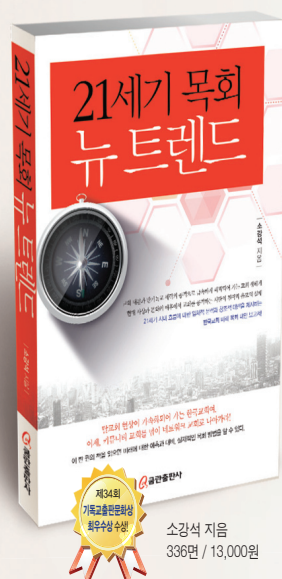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통합)

# 부총회장 당선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크게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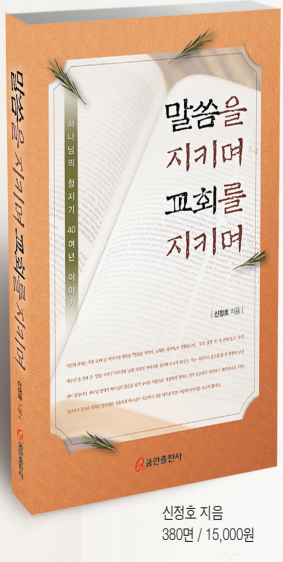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는 한국교회여,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 교회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예측과 대안, 실재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소강석 목사



339면 / 13,000원

199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세계선교회 담임목사로 사임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목사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최우수상, 매년 복리 경 국제평화상, 한국기독교총회상, 찬양평민학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교회 연합회 일처상, 대한민국 보훈문화상,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았다. 일사간외의 목회정신과 아름다운 순증에서 나오는 그의 절정 활동은 많은 목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 하나님의 청지기 40여 년 이야기 -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는 청지기 사상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써 오는 고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부지런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온 전주동신교회와 신정호 목사의 이야기다. 교회 개척을 꿈꾸는 신학생, 목회자, 성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신정호 목사



380면 / 15,000원

호남신학대학교, 정호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연한신학대학원, 서남대학교, 동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미국 유신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전도부 회장, 총회 총-농어촌 부흥, 회의록 사기, 총회 정책개발연구원, 세계선교회부, 총회사기, 호남신학대학교 총동문회장, 한국 기독교보는 설립원으로 봉사했다. 현재 전북 CBS 운영이사, 호남신학대학교 객원교수, 한일대학교 이사, 한국노인교회 회장, 전주동신교회 담임목사로 봉직하고 있다.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디트리히 본회퍼, 오해와 편견 (12)

# ‘노재팬’ 2년 만에... 일본 애니 영화가 박스오피스 1위?

〈항거: 유관순 이야기〉에서 〈귀멸의 칼날〉로, 2년간 무슨 일이? 민간 부문 양국 분위기 개선, 적폐청산 앞세운 현 정부 부담됐나 상호 발전 무산 아쉽지만, 즐거움 중심 교류에 반성 기회도 제공

◆반일 조류 속 일본문화: 2019년의 〈항거〉와 2021년의 〈귀멸의 칼날〉

한국의 2019년은 말 그대로 ‘반일’의 해였다. 2018년 10월 신일본 체제를 상대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한국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자, 일본 정부는 1965년에 양국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반대해 격렬한 항의 표시를 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한국 사법부 판결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렇게 2019년 초반부터 고조되기 시작한 양국간의 외교적 긴장은, 그해 7월 한일 무역분쟁 발발을 기점으로 절정에 달했다. 노재팬 운동, 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조) 파기 논란이 시작됐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반일 감정이 극단에 이르렀다.

이후 2020년 초반 코로나 창궐로 인해 화제성 측면에서 뒤로 밀리기는 했지만, 당시 극대화된 반일 감정의 여파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2019년 국내 영화계 역시 정부의 외교적 방향성에 발맞추어, 항일운동과 관련된 작품을 여럿 양산해냈다. 2019년 3.1절을 전후해 개봉된 국내영화 목록 가운데는 〈항거: 유관순 이야기〉와 《1919 유관순》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항거〉는 고조되는 반일의 열기를 반영하듯 흑백 화면의 저예산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100만 관객을 넘기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같은 해 8월에는 광복절을 전후해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군의 활약을 그린 〈봉오동 전투〉가 개봉되기도 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 코로나 창궐 국면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내 극장가는 참으로 뜻밖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16년부터 일본의 청소년 대상 만화잡지 주간 소년 점프에서 연재되기 시작해 TV판 애니메이션으로 일본 내 신드롬을 일으킨 〈귀멸의 칼날〉(鬼滅の刃) 극장판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이 근 2주째 관람객 수 1위를 차지하며 누적 관객수 100만에 접근하고 있다(82만).

이는 최근 국내 극장가에 개봉된 영화 및 애니메이션 중 디즈니-픽사의 〈소울〉 다음으로 많은 수치이다.

〈귀멸의 칼날〉의 장르는 시대극이다. 이른바 ‘왜색’이 짙은 작품이다. 작품 전체가 일본식 풍경, 복식, 풍습, 전설, 활극 장면으로 가득하다.

게다가 시대 배경이 다이쇼 시대, 즉 1912년부터 1926년의 일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과 동시대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그런 애니메이션이 2021년 3·1절 직전 국내 극장가에서 제법 오랜 기간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대체 2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뜻밖의 상황이 전개되는 것일까?

누군가는 그저 국내의 일본문화 매니아들, 소위 ‘오타쿠’들이 총출동해서 관람하는 바람에 저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82만이라는 관람객 숫자는 오타쿠들만 동원해서 기록될 숫자는 아닌 것 같다.

아무리 국내 극장가가 코로나로 인해 대차 개봉이 줄줄이 취소된 상황이고, 그래서 그 틈새로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반일 열풍이 지속되고 있는 나라에서 왜색이 짙다 못해 일본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듯한 작품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은 기이하기 그지없다.

◆반일조류 속 일본 이해: 기독교인에게는 부담스러운 일본 문화

2019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반일 기조가 강화되기 시작한 것은 그 이전 몇 년간 양국간 외교 및 민간 관계가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점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시기 정부 차원의 한일 관계는 순탄한 편이었는데, 이는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 정계 인물들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근처의 참모진 가운데도 친일 성향이 의심되는 인물들이 여럿 포진되어 있었기에, 대통령 본인의 일본 정권에 대한 인식 역시 국민들 사이에 많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심은 2015년 한일



2019년 2월에 개봉된 〈항거: 유관순 이야기〉(왼쪽)와 2021년 2월에 흥행중인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 편〉.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사태로 인해 극대화된 바 있다.

이렇듯 박근혜 집권 당시 정권 수뇌부가 과도한 친일 성향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국민들 사이에 존재했지만, 한편으로는 한일 양국 정권 간 순탄한 관계가 양국의 민간 교류를 크게 활성화하는데 일조한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은 앞서 말한 2019년 국내 반일 분위기가 고조 시기 직전까지 이어졌다.

한국은 일본 내 K-Culture 및 음식 문화 전파에 큰 성과를 올렸고, 일본은 한국인 관광객 유치에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아베노믹스로 인해 일본 내 경기 및 취업 상황이 개선되자, 한국인 유학생들이나 구인자들의 일본 현지 취업도 2015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났다.

관광 부문은 더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2019년 7월 한일 무역분쟁 발생 직전까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여행지로는 36개월 동안 일본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이전까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던 해외여행지는 중국이었는데, 2015년을 기점으로 그 순위가 역전된 것이다. 이후 3년 동안 2,125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 여행에 나섰다. 전 국민의 2/5가 일본여행을 경험한 셈이다.

이렇듯 정부 부문에서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 한일 양국간 분위기가 크게 개선되고, 특히 일본 여행 경험자들이 그동안 막연히 적대적으로만 생각했던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 개선된 이미지를 갖게 되

는 상황은 반일 적폐 청산을 국정 모토로 내세우던 현 정권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감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런 부담감이 2019년 한일 양국 정부 사이 외교관계 악화에 하나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추측된다.

한국 기독교인 관점으로는 현 정권의 이런 외교적 방향이 꼭 나쁘게만 여겨지지는 않는다. 물론 민족주의를 자극해 우리의 심성을 개방보다는 독단에 기울게 하고, 타국에 대한 적개심을 고조시켜 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계산적인 행태가 달갑게 여겨지지는 않는다.

한일 양국간 발전적인 상호 작용을 위한 기회를 급하게 무산시켰다는 점에 있어서도 큰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향유’, 즉 즐거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양국 간 문화적 교류에 대해 반성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순기능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인 입장에서 일본의 정신문화와 대중문화는 선교적 차원에서 상당한 부담감을 선사한다. 이는 단순히 일본의 전통문화가 신도와 정령숭배 사상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는 것, 즉 우상으로 가득한 문화라는 것 때문만은 아니다.

이러한 점은 서유럽 및 북아메리카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 마찬가지 입장이다. 한국 역시 무속신앙 기반 정신문화를 상속해 왔다는 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일본의 정신문화 및 대중문화가 한국 기독교인에게 부담이 되는 보다 큰 이유는 일본의 정권이 대대로 기독교 및 기독교 문화에 대해 보여온 경계심 및 거부감, 그리고 자국 문화에 대한 과도한 자긍심이라 할 수 있다.

일본에 처음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1543년 포르투갈인들이 일본에 방문해 무역과 선교를 개시하면서부터이다. 물론 당시 일본에 전래된 기독교는 가톨릭이었다. 당시는 일본 전역이 무려 100년 가

까이 내전에 휩싸여 있던 센고쿠(전국) 시대였다.

이 센고쿠 시대를 종결하고 일본 전역 재통일의 기반을 다진 오와리의 다이묘 오다 노부나가(자신에게 반발하던 일본 국내의 정치화된 불교 세력을 억압하려는 목적으로 기독교 선교를 허용할 뿐 아니라 장려하기까지 했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역시 기독교 선교를 적극적으로 가로막지는 않았다. 다만 일본 내 가톨릭 교세 확장이 매우 급속하게 이루어진 점에 경계심을 갖기는 하였다.

일본 내 기독교 선교가 거의 완벽하게 좌절되기 시작한 시점은, 전국을 완전히 통일하고 에도 막부를 세운 도쿠가와 이에야스 당시부터였다.

도쿠가와 막부의 최고 정책 목표는 ‘안정’이었다. 무려 150년에 걸친 내전 시기를 겨우 종식시킨 직후인이라 일본 내부의 정치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에야스의 눈에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포교된 가톨릭은 그 무엇보다 일본 내부의 정치적 안정을 뒤흔드는 요소로 비춰졌다. 그리하여 그는 1614년 기독교 금교령을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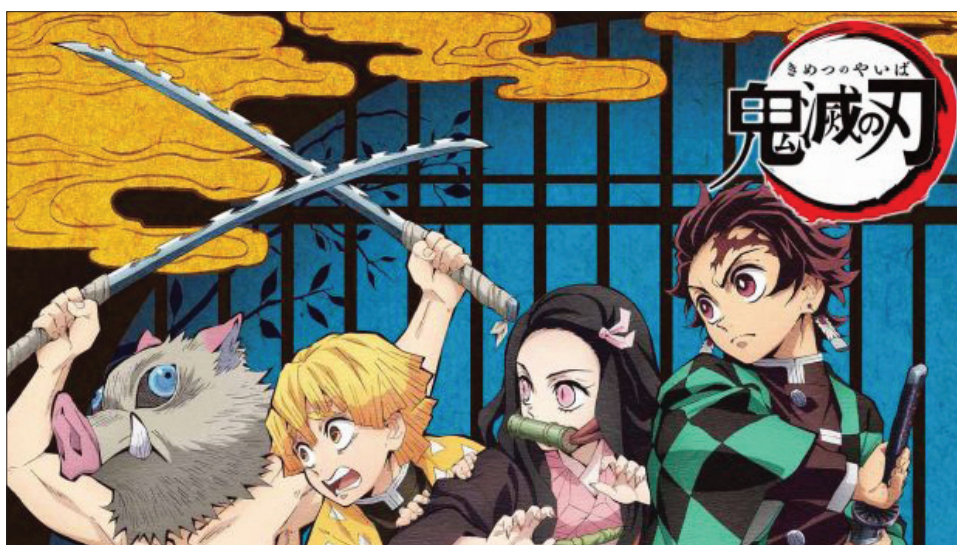
이때부터 일본 내부에서는 참혹한 기독교 박해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엔도 슈사쿠의 소설 〈침묵〉이 바로 이 시기 가톨릭 박해 사건을 다룬 작품이다. (계속)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조직신학 석사학위(Th.M.)와 종교철학 박사학위(Ph.D.)를,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목회신학 박사(교회사) 학위(Th.D.)를 받았다. 현재 서울에서 목회자로 섬기는 가운데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신학사 및 철학사의 맥락 안에서 조명하는 강의하는 중이다.



2014-15년부터 한국인들의 일본 여행이 급증해, 2018년에는 전 국민의 2/5가 일본여행을 경험했다.



2016년부터 연재되기 시작해 2020년과 2021년 일본 내에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만화 〈귀멸의 칼날〉, 다이쇼 시대(1912-1926)를 배경으로 삼는 시대극이다.



1500년대 당시 포르투갈인들의 일본 방문을 기록한 그림.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가지고, 당당하게 살라

인생 살면서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시대 앞 흔들릴 수밖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으로



한국인은 누구인가 김문조 외 21세기북스 | 564쪽

38가지 주제로 풀어낸 한국인 정체성 보고서 한국인의 내면에 대한 가장 다양하고 체계적인 연구

이 책은 38명의 전문가들이 각기 다른 주제로 한국인의 내면 심리와 사회의식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그 결실을 묶어낸 것이다.

한국인에게 존재하는 지역감정 현상, 권력욕과 외모 지상주의, 군대와 조직 내 문제, 생애의식과 사회·법에 관한 심리 등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있다.

그리스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 신전에 가면, 지혜를 대표하는 두 마디가 기록되어 있다. 첫째는 ‘어떤 것도 지나치지 않게’ 라는 말이다. 이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의미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 둘째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아폴론 신전에 적힌 말이다.

‘너 자신을 알라’에서 ‘자신’은 부와 외모와 같은 외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몸 안에 있는 각종 장기들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자신’은 훌륭함이나 지혜가 나타나는 혼의 영역을 말한다. 곧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네 혼을 알라, 네 존재를 알라’는 의미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 중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이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다.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다.

현대 사회를 ‘정체성 혼란의 시대’라고 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이 바로 서지 않아, 시대의 조류에 따라 다수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이다.

정체성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불의한 다수의 힘 앞에 흔들리게 된다. 올바른 길로 가는 시대의 조류 앞에 흔들리게 된다.

왜 그럴까? 정체성은 삶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나무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뿌리다. 뿌리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나무는 자랄 수가 없다. 꽃도 필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결국 나무는 죽게 된다.

뿌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면, 나무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체성은 삶의 뿌리이기에, 정체성이 흔들리면 나의 삶도 흔들린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고, 민족마다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한국인

으로 살고 있다. 한국인은 과연 누구인가? 내가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한국인의 정체성을 이야기 해보라고 하면 자신이 있게 이야기 할 수가 없다.

한국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연구한 책이 있어 반갑다. 그 책이 《한국인은 누구인가》이다. 이 책은 8년간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가 수행해 온 ‘정체성 연구’를 총괄적으로 점검해 보자는 목적에서 기획된 것으로, 한국인의 내면세계에 관해 38명의 전문가들의 진단을 주제별로 묶은 것이다.

편집위원장을 맡았던 김문조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다수 사례들에 대한 관찰에 근거한 귀납적 접근을 통해 개개인의 들쭉날쭉한 심리의 저변에 내재한 한국인의 정체성을 추정하는 일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는 전체는 부분의 합이 아니므로, 부분의 전부를 알지 못하더라도 전체적 형상을 파악할 있다는 게슈탈트 이론의 논지와도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귀납적 원리의 이점을 최대한으로 되살려 보자는 뜻에서 기획 단계에서 탐구의 영역을 (1) 권력, 경제, 소비, 성취와 같은 사회활동영역, (2) 이념, 전통, 종교와 같은 관념적 영역, (3) 집단주의, 세대의식, 지역감정, 수치심, 감정, 외모 의식, 행복과 같은 감성적 영역,

(4) 결혼, 가족, 출산, 입대, 중년, 노령, 죽음과 같은 생애 주기적 영역, (5) 가부장제, 법률, 인권, 통일과 같은 사회제도적 영역 및 (6) 교육, 직업, 실업과 같은 청소년층의 주요 관심사 등으로 넓혀 한국인의 정체성 구도와 특성을 식별해 보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정신의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법학, 교육학, 종교학, 언론학 등 다방면의 선도적 연구가들을 집필진으로 모셔 포괄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고자 애썼다.”

이 책은 6부로 구성이 되어있다. 1부 한국인의 사회의식, 2부 한국인의 사회심리, 3부 한국인의 생애의식, 4부 한국인의 법의식, 5부 한국인의 심층심리, 6부 한국 청소년의 생활 세계 등이다. 그리고 이 책은 총 38개의 챕터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개의 챕터씩 글을 썼다.

책을 읽으면서 한국인이지만 한국인에 대해 너무 무지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물론 지적 배경을 달리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함께 집필을 했기 때문에 때로 상충되는 견해가 있기도 하다. 때로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인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많은 유익이 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한다. 또한 이사야 43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주눅 들어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보다 세상의 가치로 보면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다. 더 배우지 못하고 가지고 못하고 못난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아버지가 되시는데, 주눅 들어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

이재영 목사 대구 아름다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하트하트오케스트라의 애국가 연주 모습(본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다음카페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칼럼니스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북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I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li> <li>▶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li> <li>▶ 지상사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li> <li>▶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li> <li>▶ 학생비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초청 이민업무</li> <li>▶ 체류기간 연장</li> <li>▶ 시민권 취득</li> <li>▶ 추방 재판</li> <li>▶ 기타 전반 이민업무</li> </ul>
---	---

[www.davidlimlaw.com](http://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미주복음방송 개국 30주년

은혜로  
빛으로  
30년  
with Grace into Light



3월 11일(목), 10am **GBC 개국 30주년 감사예배**  
 장소 : 은혜한인교회  
*실시간라디오 및 유튜브채널 생방송!*

4월 22일(목), 9am **나눔On 캠페인 특별 생방송**

7월 17일(토), 7pm **'This is Korea!'**  
 장소 : Walt Disney Concert Hall  
*팬데믹을 넘어 커뮤니티 회복을 위한 콘서트*

5월 3일(월) ~ 9월 30일(목) **제 10회 GBC 복음성가 경연대회**  
*5월부터 참가 영상 접수! 9월 시상!*

10월 29일(금) ~ 31일(주일), 7pm **2021 CCM 찬양제**

